

진주만 간 아베...참회 없이 미·일동맹만 부각

오바마와 함께 75년 만에 방문

트럼프 취임 양국 관계 시험대

TPP 재협상·방위비 분담 과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7일(현지시간) 하와이 진주만을 함께 방문하면서 굳건한 미일 동맹을 재확인했지만, 내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취임으로 양국 관계가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전망했다.

NYT는 이날 아베 총리가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진주만을 방문한 것은 그간 긴밀한 협력 관계를 유지해온 두 정상에게는 “상징적인 최고의 업적”이지만, 앞으로 “이러한 접근법은 어느 때보다 더 시험 받을지도 모른다”고 내다봤다.

내달 취임하는 트럼프 당선인이 그동안 미·일 동맹을 경시하는 듯한 발언을 이어 온 데다 양국을 둘러싼 대외환경도 악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아베 총리가 공을 들여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했고, 일본의 무역장벽과 주일미군 주둔비 등에 대해서도 거둬들인 불만을 드러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은 북한의 핵무장이 초입기에 들어가고, 중국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더욱 공격적으로 나오는 상황에서 중국에 도발적인 태도를 보여 동아시아 지역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2차 세계 대전 이래 유지된 미·일 간 동맹은 오바마-아베 정부 들어 더욱 공고해진 것으로 평가된다. 이는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양국의 이해가 일치한 데 따른 것이다.



미국 하와이주 진주만을 방문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왼쪽 두번째)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함께 27일(현지시간) 애리조나기념관을 찾아 진주만 공습 생존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컬럼비아대 국제금융·무역 교수인 이토 다카토시는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일본과 미국은 중국으로 인해 서로 가까워졌다”며 “안보 면에서 일본을 방위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일본 히토쓰바시대 후카오 교지 국제경제학 교수는 현 상황을 두고 “일본은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두고 일종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일본 지도자들은 일단 트럼프 당선인이 중국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일본 입장에서 트럼프 당선인이 무역과 대만, 남중국해와 같은 현안에서 중국에 더욱 공격적인 태도를 취하기를 바랄 수도 있겠지만, 만약 이것이 중국의 반격을 초래한다면 일본에도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

미국 외교협회의 일본 전문가 실라스미스는 “중국에 당당하게 맞서는 것은 환영”이지만 “무력 사용 가능성이나 훨씬 더 적대적인 미·중 관계는 일본에는 난처한 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아베 총리와

일본 관리들은 미일간 강력한 동맹을 유지하자고 트럼프 당선인을 설득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NYT는 예상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당선인의 등장으로 불거진 이 같은 상황을 일종의 교유의 문제로 보기도 한다.

도쿄대 정치학 교수인 구보 후미아키는 “(트럼프)가 미일 안보관계의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아베 총리가 해야 할 일은 그에게 미일 관계에 대한 기초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중국 “바티칸과 수교 준비 마쳤다”

중국 바티칸과 수교를 위한 건설적인 대화를 희망한다고 중국 고위관리가 밝혔다.

외신들은 수교협상이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양국 수교가 임박했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28일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왕쥘안(王作安) 중국 국가종교국 국장은 27일부터 베이징(北京)에서 열리는 제9차 중국 천주교 대표대회에 참석해 중국은 바티칸과 관련 원칙에 근거해 건설적 대화를 할 용의가 있으며 차이점을 좁히고 공통인식을 확대하며, 관계개선을 희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왕 국장은 관련원칙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중국 국가종교국과 외교부는 바티칸이 대만과 외교관계를 단절해야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인정해야하며 바티칸이 중국 내정에 간섭해서는 안된다고 요구했다.

왕 국장은 바티칸이 실용적인 태도로 관계개선을 위한 우호적인 여건을 만들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외신들은 양자가 최근 수차례 회담 끝에 중국의 새로운 주교단 선임에 대한 합의 초안을 만들었다고 보도했다. 외신들은 또 양자 수교협상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쌍방이 1951년 이래 중단된 외교관계 복원을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계개선 조짐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지난 2개월새 4명의 새로운 주교를 선임했으며 이들 모두 교황의 승인을 받았다. /연합뉴스

페르난데스 전 아르헨 대통령 또 피소

크리스티나 페르난데스 전 아르헨티나 대통령이 공공인찰 과정에서 친한 사업가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고 국영통신 텔레 등 현지언론이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출리안 에르콜리니 연방법원 판사는 이날 불법 공모와 사기 혐의를 받는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승인했다.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 재직 시절 기획부장관을 지낸 훌리오 데 비토와 공공사업 부 장관을 역임한 호세 로페스도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연방법원은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이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6억3300만 달러(약 7640억 원) 규모의 자산도 동결시켰다. 세 사람은 2003년 5월부터 2015년 12월

사이 파타고니아 지역의 공공사업 투자를 하면서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업가 라사르 바에스가 계약을 따내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바에스는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과 남편인 네스토르 키르치네르 전 대통령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인물로, 지난 4월 수감됐다.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이번 기소가 마우리시오 마크리 현 정권의 음모에 의한 정치적인 박해라고 비난하며 결백을 주장했다.

그는 법정에서 “바에스는 나의 친구도 동료도 아니다”고 말했다.

페르난데스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환율 선물시장을 조작해 국가에 손실을 끼친 혐의로도 기소된 상태다. /연합뉴스

백악관, 러시아 美 대선 개입 보복 조치

미국 정부가 해킹을 통한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에 경제 제재를 포함한 보복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워싱턴포스트(WP)가 27일(현지시간) 복수의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르면 금주 발표된 제재안에는 경제 제재 외에 규탄 결의안 마련, 은밀한 사이버 보복, 러시아 해커에 대한 형사적 기소 등이 검토되고 있다고 관리들은 전했다.

이는 러시아가 공화당 대선후보인 도널드 트럼프를 미 대통령에 당선시키기 위해 민주당전국위원회(DNC) 등에 대한 해킹을 감행했다는 최근 중앙정보국(CIA)의 결론에 따른 것이다.

백악관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발동한 행정명령을 근거로 러시아에 보복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다.

이 명령은 전기시설이나 교통망처럼 중요한 국가 기능과 관련된 컴퓨터시스템에 해를 끼치거나 상업비밀을 사이버 상에서 훔쳐 이익을 얻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는 제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미국의 국가안보와 금융안정을 위협한 사이버 행위에 관련된 외국인의 미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한편 제재 대

상으로 지정된 개인들과의 상업적 거래를 차단하며 이들의 미국 입국도 막을 수 있다.

다만 이 명령이 선거시스템의 사이버 해킹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가 논란이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는 내부적으로 적용이 어렵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당 선거시스템을 중요한 인프라로 보기 힘들며 선거시스템에 대한 해킹은 상업비밀 절취도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미 정부가 선거시스템이 미국의 주요 인프라의 일부라고 적 극적으로 해석하거나 기존 러시아를 겨냥한 행정명령을 활용함으로써 돌고구를 만들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제재 효과는 불투명하다.

지난해 중국의 해킹에 대응해 미 정부가 중국 기업들에 대한 제재를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사이버 상에서 상업적 스파이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처럼 억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긍정적 전망이 있다.

WP는 “제재 위협은 다른 조치들과 잘 조화를 이루면 향후 억지 효과를 낼 수 있다”며 내다봤다. /연합뉴스



IS 본거지 이라크 모술에서 피난온 난민들이 모술 동쪽 하산 삼 난민캠프에서 구호품을 받기 위해 울타리 뒤에 서 있다. /연합뉴스

IS 거점 모술 탈환 해 넘긴다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를 이라크에서 소탕하는 데 앞으로 3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이라크 총리가 전망했다.

하이데르 알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27일(현지시간) 국영TV에 방송된 영상에서 “여러 조건을 고려하면 이라크에서 다메시(IS의 아랍어 약칭)를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서는 3개월 정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이는 앞서 알아바디 총리가 예상한 일정에 견줘 다소 지연된 것이다. 이라크군은 서방의 지원을 받아 올해

10월 IS의 이라크 거점인 모술 탈환작전을 시작했다. 작전 초반 알아바디 총리는 연말께 모술을 탈환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IS는 거세게 저항하며 버티고 있다.

최근 IS는 모술 내부가 평소와 다를 않다가 분주한 거리와 시장 등 도시 곳곳의 모습을 선전매체에 연일 공개했다. 특히 민간인 대부분이 달아나지 않고 도시 내부에 머무르면서 이라크군과 동맹군이 공세를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경매 추천물건

- ★ [공정] 광산구 옥동 평동초교 동측위치 평동 제1차 일반산업단지 토지 1652.6㎡ 건물 2547.76㎡ 감정가 11억 ▶ 최저가 7억7천
- ★ [건물] 목포시 석현동 가톨릭대학교 부근 병원건물 토지 12,096㎡ 건물 8,337㎡ 감정가 139억7천3백 ▶ 최저가 78억2천5백
- ★ [건물] 순천시 풍덕동 중앙초교 인근 주상복합지대 10층 건물 토지 349.4㎡ 건물 2,281.94㎡ 감정가 24억3천 ▶ 최저가 17억
- ★ [무인텔빌적합]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 도곡은천관광단지내 포장도로점 토지 3,234.2㎡ 건물 4,280.8㎡ 감정가 37억8천 ▶ 최저가 15억5천
- ★ [건물] 장성군 북하면 악수리 백양사남서측 포장도로점 토지 926㎡ 건물 837.49㎡ 감정가 7억8천 ▶ 최저가 2억8천
- ★ [건물] 장성군 삼서면 대곡리 요양병원 토지 11,546㎡ 건물 5,733.24㎡ 감정가 48억8천 ▶ 최저가 21억9천
- ★ [공정] 장성군 동화면 용정리 장성 백이사거리인근 공장지대 토지 9,178㎡ 건물 5,842㎡ 감정가 36억5천5백 ▶ 최저가 20억4천7백
- ★ [공정] 광산구 옥동 평동산업단지내 기아자동차출하사무소 서측 도로점 토지 2,911.9㎡ 건물 1,811.2㎡ 감정가 32억9천7백 ▶ 최저가 23억8백

투자 추천 물건

- ★ [토지] 나주시 노안면 장동리 계획관리지역 주택, 과수원 (물류창고, 공장적합) 토지 34,000㎡ 매매가 상담후 협의가
- ★ [토지] 동구 지산동 무등산 유원지 카페거리 부근 토지 1,950㎡ 주위 식당, 카페성업중 매매가 상담후 결정
- ★ [토지] 북구 삼각동 31사단 정문 인근 전 1,326㎡ 1종일반주거지역 주위 식당성업중 투자적합
- ★ [토지] 제주도 서귀포시 강정마을인근 바다, 한라산조망, 펜션, 빌라 부지적합 토지 4,000㎡ 주택 28세대가능 상가 건물로 교환 원함
- ★ [토지] 전남 함평군 대동면 금곡리 대규모 펜션 카페 대지 15,668㎡ 건물 900㎡ 미래가치 우수 매매가 상담후 결정
- ★ [토지] 북구 화암동 무등산공원내 담 1,700㎡ 주말농장 및 농지원부가능 매매
- ★ [토지] 담양군 금성면 덕성리 824평 무인텔 허가 득(19객실) 매매가 8억3천
- ★ [건물] 광주 서구 매월동 자동차매매단지앞 토지 5,359㎡ 건물 595.4㎡ 2층 공장 매매 평당2백5십
- ★ 광주근교 전원주택부지 다량보유

수익형 추천

- ★ [건물] 서구 금호동 아파트 밀집지역 사우나,헬스 6층 건물 대지 1,896㎡ 건물 1,320㎡ 1층 점포다수 고수익형 매매 58억
- ★ [건물] 광산구 첨단 롯데마트부근 지하1~7층 요양병원 대지 1,350㎡ 건물1,192㎡ 임대안고도 가능 매매 60억(협의가)
- ★ [건물] 광산구 공황에서 송정역 대로변 지상 6층 병원건물 대지 958㎡ 건물 2,570.58㎡ 매매 35억
- ★ [건물] 광주 서구 쌍촌동 상무대로변 지하2층~지상10층 대지 777㎡ 건물 5,902㎡ 매매 55억
- ★ [건물] 광주 서구 풍암동 상업지구 대지 510㎡ 건물3,245㎡ 지상9층 병원빌딩 용 30억 보증금 2억5천 월2천8백만원 매매 50억
- ★ [건물] 광주 북구 용두동 양산사거리부근 대로변 메디컬센터 입점중 대지 929㎡ 건물 895㎡ 매매 63억
- ★ [건물] 광주 서구 풍암동 동부센터빌부근 코너 대지 298.9㎡ 건물 175.9㎡ 4층건물(용6억포함), 보증금 7천 월4백6십 매매 13억5천
- ★ [건물] 담양군 금성면 봉서리 현 양식장 5,522평 장어식당 운영 중(연매출 1억5천), 주택(포함) 매매가 17억

공인중개사 장현준 010-3610-4039 배우면서 함께 일하실 공인중개사 구함 062-714-2258